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까지, 더욱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 구축

-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에서 매달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 방류 전 조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조사·관찰하기 위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km~1,600km 반경 내의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실시한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앞으로도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는 매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8월 조사는 지난 8월 19일 출항하여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한다.”라며,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볼 수 있다.

* (세슘-134) 10Bq/L (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0,000Bq/L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행록 (044-200-5280)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진우 (044-200-5285)

참고1

공해상 조사 실시 해역 및 정점도





